

수출시장 확대, 세계속 흥아기연 도약 기대 고속자동블리스터 포장기 개발, 동탑산업훈장 수상



강 대 희
(주)흥아기연 회장

블리스터 포장은 캡슐이나 타블렛 등의 약을 사람들이 쉽게 복용하고 휴대가 간편하도록 합성수지 필름을 이용해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는 기술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은 One Blister One Carton 포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서를 첨부, 포장하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 방법의 변화 추세와 GMP 규정에 따라 지난 1998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고속 자동 블리스터 포장기(Automatic Blister Packaging Machine MINISTAR - 400)를 개발한 (주)흥아기연 강대희 회장이 2003년도 우수 자본재 개발 유공자 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중소기업인으로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강대희 회장은 “이번 훈장이 지난 30여년간 업계에서 큰 일익을 담당했다는 의미로 수여된 졸업장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지난 1970년 흥아무역을 설립한 이후 81년 흥아기계를 설립, 86년부터 해외수출을 개시한 강대희 회장은 현재 블리스터 포장기 20여종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

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다수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주)홍아기연의 고속 자동 블리스터 포장기 (Automatic Blister Packaging Machine MINISTAR - 400)는 고속 생산 (400 packs/min) 및 부자재의 절감 효과로 연간 약 8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연간 500만불의 수출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 회사들은 고가의 외국 기계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고속 자동 블리스터 포장기 개발로 외국기계 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어 외화 절약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국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 자동 블리스터 포장기는 수출 주력형으로 개발, 현재 동남아시아, 미국, 동유럽 등 전세계 각국에 수출해 국위 선양은 물론 외화획득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계 사용 부자재로 PVC는 물론 친환경 film인 PP film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서 국산 PP film의 개발을 유도, 환경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강대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수시장만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다.

홍아기연의 “지구촌을 무대로, 세계인을 친구로”란 슬로건도 그의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것.

강 회장은 (주)홍아기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을 확대

하고 양적 품목의 향상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원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주)홍아기연이 축적된 기술과 함께 전임직원이 호홉할 수 있는 업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홍아기연은 국내 및 해외에 600여대의 기계를 수출, 국내에서 생산 및 납품 1위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 중 280여대를 미국, 유럽 등 40여개국에 수출함으로써 커다란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은은 물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고속 자동 블리스터 포장기와 관련해 3개의 특허와 EM/CE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술과 품질로 수출 기반을 쌓았고, ISO 9001/ISO 14001을 인증 받음으로써 환경친화제품임을 공고히 했다.

강 회장은 또한 독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약 40여회의 해외유명포장전시회에 참가, 280여대의 수출오더를 받아 4000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져왔으며, 국내 320여대를 판매, 수입 대체 효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강대회 회장은 수출 60% 이상을 달성해 전세계인들에게 (주)홍아기연의 MINISTAR 라는 Brand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외화 절약과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산 블리스터 포장기를 개발, 중소기업의 위상을 제고에 한껏 기여한 강대회 회장과 홍아기연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